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 제 25 회 총 회 —

총회장으로 金德成 목사 피선

혁 신 의 총 회

제일대한기독교회 제25회 정기총회가 일본 전국 4지 방회에서 59명의 총대가참 석한 가운데 지난 10월15 일부터 16일까지 京都교회 당에서 개최되어 2일간의 회무를 끝마쳤다

이번총회는 제일대한기독교회의 61년간의 역사상 가장 특색있는 예비총회를 총회전 하루에 모이게 되었 으며 현 교세의 삼분지가 되는 부녀신도의 발언 교회의 미래를 맡겨야 될 청년대표의 발언 총대를 보 내지 못하는 미조식 교회 대표들의 발언을 겸손하게 듣고 교회의 혁신과 전진 을 위한 진지한 토의가 있 었다 이 예비총회의 결과는 총회전반의 회무에 반영되었으며 우보적 이나마 우리교회가 전진하는 자세

를 가추게 된것은 큰 성 과라고 아니할수 없다

금번 총회의 특색을 든 다면 (1) 총회임직원에 신 인이 5 명이나 되었으며 총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등 에 40세대의 젊은층이 피 선된일이다 (2) 부녀신도대 표와 청년대표에게 발원권 있는 준 총대권을 허락한 일 (3) 제일동포 60만의인 권을 지키기 위한 입 손 발이 되기 위하여 선교국 에 사회문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된일 (4) 교 역자 후생연금제도 교역자 퇴임사태규정 교역자 정년 퇴임대우안 등 교역자 복 지에 관한 문제에 최후결 론을 내리고 1970년 정월 부터 실시하게된일 (5) 선 교 10개년 계획 실행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강력하

게 추진하게 된일이다

제일대한기독교 위에 성 령의 인도와 사명에 대한 뜨거운 자각 자기를 버리 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지 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 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 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다

새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 ▶총회장 김덕성(福岡) ▶부 회장 김원치(西成) ▶서기 김득삼(熊本) ▶부서기 유석 준(京都) ▶회계 김광수(名古屋) ▶부회계 김한필(西新井) ▶전도국장 정인수(平野) ▶교육국장 김경찬(神戸) ▶청년국장 맹철희(船橋) ▶부녀국장 홍영기(下関) ▶후생국장 김재술(京都) ▶선교국장 최경식(武庫川) ▶시취국장 오윤태(東京) ▶치리국장 김덕성

총회는 주체성을 한층 더 강화하자

유 석 준

제25회 총회를 지나고 이 것 저것 생각해 볼때 우 리교회가 장족의 발전하였 다는 것을 감사하는 동시 에 금후 우리 총회가 나 아가야 할 일 많은 중에 도 먼저 요망되는것은 주 체성 확립에 중점적으로 매 진해야 할것을 절실히 느 꼈다

단절 불신의 시대라고 하 는말이 대단 유행되고 있 는 현대 특히 제일동포사 회에서 선교의 사명을 갖 인 우리교회는 어느시대보 다도 주체성을 강하게 전 지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우리 총회가 찾아야할 주 체성이란 무엇인가를 나는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신앙의 주체성이 다

사상적 자유 쟁탈지대라

고 하는 일본사회에서 자 치하면 신앙의 전통성을 잃어버리기 쉬울뿐 아니라 영동한 방향으로 나아갈 우 려성을 가진것이 우리 총 회 위치인것을 우리는 체 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 대에 흔들리는 신앙적 태 도로는 우리 총회를 지켜 갈수 없을것이라고 나는 솔 직히 지적하고 싶다 특히 우리교회는 통일된 신학적 훈련의 기관이 없을뿐 형 형색색의 신학교를 거처온 교역자들로 구성된 총회임 을 깊이 생각하여 총회가 확고한 신앙적 체제를 세 우지 않으면 장차의 주체 성없는 일종의 친목단체 처럼 되지않는다고 어느누 구가 보증할 것인가

둘째로는 민족의 주체성 을 확실히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일회담을 통하여 제일한국인은 일본에 영주 할수있게 되었으나 우리의 문제는 일본땅에서 의식주 가 안정되어서 평안히 살 게되면 그만이지 하는 생 각과 또 한거름 나아가서 는 세계가 한집같은비 하 필 민족을 운운할것이 무 언가 하는 국제인이 된 다는 미명하에서 자기를 망 각하고 도피하려는 비겁한 생각을 완전 탈피할수 있 도록 민족의 자각과 주체 성을 명확히 하여야 할것 이다 자신의 주체성이 없 는 사람은 결국 팔방미인 이 될 뿐 남을 지도한다 던지 앞장을 설수는 없을 것이다 제일60만 동포에게 복음을 선교해야 할 책임 을 자부한 우리교회가 한 국인이란 주체성이 약해서

는 동포의 구령사업을 한 다고 담대히 앞장 설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멀리 와 도태를 당할것 밖에 없을것을 나는 확실히 말 하고 싶다

세째로는 사상의 주체성 이다 흔히 사상은 그사람 의 자유이며 타인의 사상 을 운운할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일 대한기독교회 교인이나 지도자는 예수그 리수도의 교훈의 지배된 교 육이나 반기독교적 사상은 일호도 용인해서 안될것 이다 어떤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운하면서 주 체성을 잃은 타협주의가 되 어서 교회의 본질에서 이 탈되는 행위를 하기쉬운 주 체성없는 평화주의 정신빠 진 위선적 애린 애인자가 되어사는 교회가 혼란에 빠 질뿐 아니고 불원한 교회 존재는 없어지게 되고 공 산주의자의 이용물이될 것 이라는 것을 나는 강조하 는 바이다

네째로는 각국의 지도의 주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나는 20년전 부터 주장하고 온것은 우리 총 회가 지도체제를 피지도자 의 뜻대로 할것인가 피지 도자가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도록하느냐 하는것을 말 하여왔다

일관성 있는 지도태세를 세우지않고 그때 그때 형 편을 따라 학생이나 청년 이나 교인들 마음에 알맞 는 인기를 얻는 지도가 되 느냐 하는것이다 오늘날 일 본사회를 특히 일본 기독교회를 우리는 냉정히 주 목해 보아야 할것이다 일본 이 패전이후 허탈주의에 빠 저 이관성없는 교육 지도 를 해온 결과가 오늘의 일 본교회 지도자가 고민 하 고 있으며 교회가 폭력단 체처럼 된것은 필연적으로 받을 벌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총회 각국은 맡겨 진 바 책임을 완수하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총회방 침과 지도이념에 벗어나는 탈선되는 무골충같은 국의 활동은 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더욱 강하 게 말하고자 하고 소원하 는 것은 선교 10개년 계 획사업에 대한 추진력과 지교회의 협력체제를 확립

시켜야 할것이다 1978년까 지 우리는 이 운동에 총 령을 경주한다는 굳은 결 의와 인식이 한층 더 강 화되어야 할것이다 선교60 주년 기념식으로 이운동은 끝난것 같이 생각하는 교 회나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될것이며 이 일은 60주년 기념식으로 시작이며 출발 이란것을 우리는 깊이 인 식하는 동시에 선교의 주 동력을 발휘하는 주체성을 일보도 사양해서는 안될것 을 주장하고 기원한다

(경도교회 장로)

용서에 대한

감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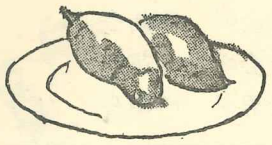
우리들의 주되신 하나님 이시며 아버지나 언제든지 꼭 당신께 감사함을 드리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 리의 지난동안을 보호하시 고 도우시고 양육하셔서지 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아 오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고 간구하는것을 들 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과 이 해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죄짓지 않 고 기쁨과 건강함과 그날 그날의 구원을 얻는 중에 지낼 수 있도록 하여주십 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께 서 우리들과 당신의 거룩 한 교회를 시기와 두려움 과 모든 사탄의 역사에서 건지어 주시으며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채 워주십시오

하나님 말과 행실과 생 각중에서 우리가 당신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선하심 과 사랑으로 기꺼이 용서 하시고 당신께 소망을 두 고있는 우리들을 버리지마 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 지않게 하실뿐 아니라 악 한자의 울무에서 건져 주 십소서 당신의 독생자 예 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축은 히 여기심을 의지하여 비 나이다 아멘

—성마가의 기도문—



새롭게 된 자의 감사

박 명 준 목 사

고대 헬라의 물리학자 알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저 유명한 원리를 발견한때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와서 "발견했다! 발견했다!" 하고 말하면서 달려나왔다고 전해있다 이것을 우리도 이해할수 있다 어떤 때 기쁜일이 있을때 저절로 뿔뿔이 있다 참 기쁠 때 어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겠음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 할찌니라》 야고보 5장 13절》과 함과 같이 기쁠 때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하게 되는것이 참이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헛되게 먹고 마시고 땀만 흘리는 인간은 생각하고 감사할줄 모른다던지 감사하지 않을때 존엄성과 삶의 길을 잃게된다

주 예수께서 열사람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다 마음에 기뻐했다 문둥병 들린자는 사회에 버림을 받아서 저들은 다 떠나서 외딴곳에 살며 "부정자" 부정자라고 외침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레위기 13:45) 그러한 가엾은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니 기뻐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아홉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뻐하지 못하였다 그후 그들의 소식은 하나도 알수 없었다 그중의 한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 는 사마리아 인이라 이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기쁨을 가졌다 참으로 이같은 사람은 행복한 분이다 왜냐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기쁨과 감

사는 기리 계속하는 까닭이다 자기 도취적인 기쁨은 일시적이어서 그 도취에서 깨때는 자기 험악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는 응답의 감사는 영속한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산다는 비서 감사가 나올수밖에 없고 예배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는 하나님의지극하신 은사에 주목합시다 멸망받을 죄인을 주님의십자가에 형틀에서 풀리신 보혈로 구속하여 새롭게 살게하여 주시는가 자세히주목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자 감사하는 눈물과 다함없는 기쁨이 솟아 넘칠것이다 감사는 단지 말로만 마치지않고 이것을 날마다 생활의행동에 반영되지 않으면안되는 것이다 가난한 과부는 그생활비 전부를 받쳤다고 (마가 12:41-44) 기록되

었다 어찌하여 저는 그같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헌제"를 할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합이 들림없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여도 하나님께 헌제함을 기쁨으로 할수 있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것은 그리스도께 자기를 헌신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하는것을 아까워한다" 고 바울·리스목사는 말하였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된자의 감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명까지 바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야 한다

우리는 감사절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빠짐없이 형제대로 기쁨마음으로 최선것 바치고 오는데도 신뢰중에 거룩한것을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며 명일에 희망을 가짐은 신자의 합당한일이며 수확 감사절의 의의있는것이다 (名古屋교회)

— 12월 여전도회 월례회를 위하여 —



영혼의 양식

누 가 2 : 8~20

복음은 들에서 양을치는 목자들에게 전해 졌읍니다 오실 왕은 인간 평범한노동을 축복하신 것임니다 우리가 맞이하려는 크리스마스의 주님은 보통 노동에다 축복의 빛을 가져오셨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흔히 천사가 적막한 들에 목자들을 방문한 뜻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왕래하는 이들에게 비치는빛은 불수 있어도 노동하는 목자나 거리의 청소하는 이

들에게 비치는 빛을 보는이가 없습니다 이상한 곳 팽창한 장소에서 신선한것을 찾으나 보잘것 없는듯한 평범한 가운데서는 신성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평민의비천한 일 가운데 영광의빛이 비취인 것입니다

× ×

천사가 일러 가라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할 사건에 맞닥들였을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 있는자는 복된 사람임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남쪽의 작은 동리인데 그곳은 "빵의 집" 즉 곡식밭이 많은 농촌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뜻 깊어집니다

이 작은 기사를 통해서 천지를 꿰뚫은 큰 기쁨의음악을 들을수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나심은 천지 창조이래 처음자식이요 새사람의 처음 익은 열매의 탄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된 우주적인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아주 소수의 믿는 자에게만 알려졌읍니다 모든 높은 진리는 소수에게만 들려지는 것임니다 그것도 세상이 망각하는 곳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쁨음악을 들을수있는 귀있는 자는 복있는 자 임니다

× ×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하늘의 빛을 보는 눈과 하늘의음성을 듣는 귀를 겸하여 가지고 있었읍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먼 길도 개의치 않고 구주를 경배하러 갔읍니다 진리에 대한 열

정 복음을 믿는 열심은 그러한 것임니다 그들은 또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읍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이의 태도 임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읍니다 참으로 모든 기독교자는 이와 같고자! 이 계절에 다시 새로이 눈떠 보십시오

× ×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가 처한 고달픈 자리에서 하늘음성과 영광의 빛을 맞이하며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여 오시옵소서! 매마른 저희 영혼속에! 주님 공로 의지하여 기도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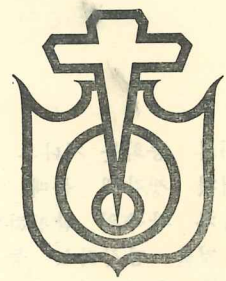
—아 멘—

알림; 이번총회에서 그동안 본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던 정인수목사님은 전도국장으로서 영임되시고 새로이 혼영기목사님께서 부녀국장으로서 피택 되셨읍니다

※ × ×

제일대한기독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창립20주년 기념식과 제21회 정기총회를 지난10월 7,8일 경도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성대히 거행하였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상—
(이 영 속 기)



예루살렘 로마 파리 런던 주내 一부를

대 여 행
大 旅 行

★13日間、1970年11月2日～11月14日
★¥467,100—

기독교신자가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낳으셨든 말구유 십자가의 갈보리 겐세마네 요단강 등 성경의 곳곳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이 걸으신곳을 나도 걸어보는 여행입니다 그외 구라파의 주요도시를 낄낄히 관광하는 대 여행계획에 필 참가하옵기 삼가 바라마지않읍니다



海外への

ご旅行は………

株式会社

世界旅行社

本社・大阪市天王寺区筆ヶ崎町17
大阪興銀ビル4 F/TEL.06 (772) 5667
大阪東北営業所・守口市馬場町17280/TEL.(991)3756

Universal

Travel Service Co., Ltd.

社長 金 振 玉

韓国教会との交わりの中から

日本 聖公会 京都聖マリア教会

長谷川 道夫 司祭

今夏、私共約20名は、韓国教会との交わりを持つことが出来て心から感謝している。私共の韓国への旅行は、第一に、日韓両国の歴史的な関係によって遺されている或種の対立感とでもいうべきものに私共の信仰から照して明確に採り上げ、時間を掛けて考えてみよう、というのが狙いであった。第二に、その歴史的関係を全く知らず、ただ、すべての人は兄弟である、という言葉をその伝実行しようという若い男女達に、そのような場を設けることが必要と感じたからである。

私は、ここで余りにも明らかな日本の韓国に対する加害者として歴史を列挙する積りはしない。それを償う具体的方法も知らない。むしろ、被害者が加害者に対して、さし伸べた暖かい愛の手に。途惑いしながらも、深く感謝し、そこに韓国キリスト者の積極的な愛の業を見出し、主に感謝せざるを得なかった。旅行目的の第一は、先に挙げた第二の事柄によって見事に私共に示された。すなわち私は、おこがましくも青年達に交わりの場を設けようなどと意図した事を恥しく思う。私が彼らによって、その場を与えられ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彼らは、言葉の障壁を破りあらゆる手段を用いて、韓国青年の真意を知り、また、自らの思想を伝達した。そこには、香り高い美しい花が咲き始めた。ある青年は帰国後

日韓問題に異常な関心を示し法律を学ぶ者として、生涯を通じて、その問題に関わろうと心を定めたし、また、或る青年は両国間の平和の問題に積極的に関わろうとしている。それらの種が結実する時は知らぬが、神がこれを育て養い給うと信ずる。

さて、私自身はどうであろうか。広島でギルドウィン司祭と語り合い、青年達によって、逆に設けられた交わり

の場に、何らかの結びつきを考えている。私は卒直に言うならば、私はこの問題に突進しそうな気がする。在日少数民族の問題に鋭意集中したい。だが、それを遮るものは自らに託された会衆の問題である。余りにも自己目的化した牧会生活に、慄然とする。私は、自らの意識と、現実生活との間に立ち、躊躇している姿を見る。外国人の基本的人権を守るために、今の与え

られた場で努力することが最善である、と納得するのがよいのか。余りにも、私は幼な過ぎるのだろうか。片手間に表面的に、馴れ合いの雰囲気の中で、在日韓国人問題を単に茶のみ話として論じていけばよいのだろうか。人々に問いかけても、それは、日本の社会の現実とはおよそ遠い問題として取り扱われている。「のれんに腕」であるいろいろな会合に顔を出し議論する空しさも感ずる。私の出来る事は、韓国の人々のために、ただ、とりなしの祈りをするのみである。だがまだ、何か出来る筈である兄弟姉妹と力を合せ、祈りつつ、進みたい。

がある事を統計表を以て示し人間が真に人間として扱われていないこの現実を直視して人間の基本的人権を在日韓国人にも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事を強調された。

田永福牧師からは「引き裂かれた人権（日本人の体験から）」と題して……日本人の韓国人に対する人権無視の事実を示された。先生が語られた短い話の中で、暗殺のある暗い面を持つアメリカは実は明るく、暗殺がないので明るく見える面を持つ日本は実際には暗いのである。何故ならば、アメリカでは暗殺される程に人権の為に闘う人がいるからである。しかし、日本には、その言う人がいないから実際には暗いと言ったのである。この様に、人権が無視されている日本の現実で我々は人間の基本的人権を守って行く為に起きあ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

出入国管理法反対の運動によって廃案になったものの日本の状況は在日外国人の人権無視を更に諸種の形で表面化されてくることであろう。こうした際に、我々に多くの問題を提供してくれた。この事に、今後の発展を期すると共に、皆で取り組んでいきたいものである。

人権問題懇談会

—— 在日外国人の人権を守る会 ——

去る10月20日（月）、約80名が日本キリスト教団東梅田教会に集まり、在日外国人の人権を守る会発起会を兼ねた人権を守る集い、公開の懇談会が持たれた。日本国際反戦デーの前日であったので入管事務所の傍聴私服が入場者を張るなどの緊張した中で開会された。李仁夏牧師による講演は「今日の人権問題をめぐって」と題して…世界に於ける少数民族の問題を話された。英国に於ける所謂あの宗教戦争は単なる宗教的対立による問題ではなく、多数派のスコットランド人が少数民族のアイランド人に対して差別をしていることから生ずる問題でもある。これは単に米国のみ

ならず世界の到る所で見られる問題でもある。アメリカの黒人に対する問題、アフリカに於ける白人対黒人の問題、ヨーロッパ・印度・南アメリカのみならず、社会主義国でも見られる。一日本人がアメリカで黒人に差別待遇をするなどと言った所、貴国に於ける部落民への差別や在日韓国人への差別はどうなのだと反問されて、次の言葉が出なかったと言う。今や在日韓国人問題は日本のみならず、世界の人の注視のま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この前国会に出された出入国管理法は、日本の官吏の取扱の便宜の為にのみ作られた法案であった。大学を出た者でも韓国人であるが

故にダンプカーの運転手にしかねないのは例外的ではない法的にも、経済的にも、又教育の面からでもひどい差別

第2回 人権を守る集い

「在日外国人の法的地位」

講師 前名古屋入国管理事務所々長

中 下 薫 氏

日時 11月24日（月） 午後7時

場所 日本キリスト教団 東梅田教会

（扇町・読売新聞社横）

主 催 在日外国人の人権を守る会

누구든지 오십시오

印刷の仕事をしませんか・・・

僑文社は在日大韓基督教会をはじめ、韓国人団体などの韓国文を主として、あらゆる印刷をしております。

在日大韓基督教会の文書活動に貢献し、韓国人の民族意識昇揚と文化向上に貢献するという意義のある仕事なのです。だから、私は明るい希望を持って働いております。共に「やろう」と思う人はいっしょにやりましょう。

《資格》 ★ 韓国人として自覚を持っている青年（夜間生も可）

日本人でも韓国に特に関心のある方なら可

★ クリスチャン、または基督教に理解のある方

■ 詳しいことは右記
にお尋ね下さい。



僑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話 (06) 716-5046

高 仁 鳳

僑文特製 年賀発売

韓国的図がらを取り入れたユニークな年賀状を作成しました。

僑文印 年賀状 価格表 <文面印刷共>

100枚 ~ 500枚	100枚につき	1,600円
600枚 ~ 1,000枚	〃	1,400円
1,000枚 ~	〃	1,200円



◎電話下されば見本帳を送ります。



聖 書

何も出すものがありません

ル カ 11:5~13

1、キリスト教の信仰告白の中で無からの創造を信ずる信條がある(創1:1~5)。これを始めとして聖書の中には何も無いところから出発して、もっと豊かな生活をおくることが教えられている。貧しいやもめのレプタ二つの献金は献金の美談として伝えられている。生活費全部をささげることは、自分は神様によって生かされているとの深い信仰から出る行為である(マルコ12:41~44)。エリヤはアハス王に対して、この国に旱魃がおこるであろうと予言した。それは王を始めとして多くの国民が罪を犯しているのです。その天罰として三年六か月間も神様は雨を降らせなかったのである(ヤコブ5:17、王上17:1~7)。この時にエリヤはケリテ川にかくれて祈っているときに、エリヤのためにカラスが朝夕に食物を運んで来たとのことである(王上17:6)。

2、今日の聖句に出て来る例話の中で、或人に友人が夜中に尋ねて来たけれども、何も出すものがなかった。そこで彼は自分の他の友人の所に行き、友人にしつこくお願いをして自分の所に来た友人に食物を与えることが出来たとのことである。私たちは自分に何もなければ、他人に親切や愛情を傾けることも、困ったときに助けることも出来ないと思いがちであるが、そうではない。この人のように自分にあるのは親切心や助けたいとの切なる願いである。その心と愛情が友人を助けることが出来るのである。物を持っている人よりも持っていない人が大きな仕事をしている

し、社会のためにつくしている。(行3:6~7)。

3、予言者エリシヤに弟子がいたが若くして死んだので未亡人と二人の子供が生活苦にあえぎ、借金取りが来て苦しめていたので未亡人は神のために仕えた主人が若死にして

この苦しい目にあっているのですと苦情を言ってきた、彼女の家にいるのはひとびんの油だけであった。そこでエリシヤは隣近所から器を借りてきて、熱心に祈ってその油を器全部に入れて見なさい、といった。そこで祈った

ら油が全部の器に一杯入るだけにふえてきたので、それをもって借金を返して三人が豊かに生活出来たとのことである。(王下4:1~7)。子供がもっていた五つのパンが五千人を食べさせて余った12のかごの物語等は実に無い所から生きる力がわきあがるようにさせる(ヨハネ6:9~13) 私たちは無い所から今日の生活を築いたのである。この恵みを感謝しよう。(第二コリ8:2)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我は実際にキリストに在って選ばれており、完成している最も具体的な実在性を持った者として立っているのである。故に問題は選ばれているのを知るか知ら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る。和解という最も重要なことは既にキリストを通して恵みの選びが勝利しており、この神の行為こそが神学の中に立っているのである。神は恵み深くあられたので行為を為されるその最初から恵み深くあられ、それが勝利の喜ばしき選びとして語られている故に、この贖罪的使信(決定的神の行為)を説教し証すべきであると云っている。選びの教理を聞く時に自分が選ばれているのか選ばれていないのかと自問するのではなく、既に永遠より行為をなし給うた恵み深い神を聞くのである。このように選びというものが、救いが滅びかではなくて、既に勝利した恵みの選びだと理解するならば、じっとしている方がおかしいのであって、黙っておれないし、黙ってはならないのである。このように選びは救いの福音の中心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選びの総体はイエスキリストであり、彼に於てのみ選びの存在論的基礎がある。キリストこそ選ぶ神であり選ばれた人であって、この方法によってのみ、我々は真に責任をもって、慰めに満ちて牧会の業にも、神学的にも語りうるものであるというのである。創造者、和解者、贖罪者としての神の行為の全き勝利は、この選びの教理に集中しているのを我々は見るのである。

(つづく)

× × ×

バルトの勝利の神学

< 1 >

金 承 俊 牧 師

私たちは、今日、左右の分裂や世代間の断絶、価値観の全き相異等から来る混頓とした状況に生き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に於て生きて行くときに、何が正しく、真実であるかという善悪の判断が非常にむづかしく、自ら正しとしつつも誤った方向に進むことが多いのも事実である。このような重要な問題を考える度に、ナチスのヒトラーと闘い通した 牧師・神学者であるボンヘッファーの思想と行動を思わずにはおれない。ドイツ国民の大多数が、ヒトラーを独逸国民の救主として熱狂的な歓迎をもって迎えていたときに、ボンヘッファーはどうして、ヒトラーの悪魔性の正体を見破り得たのであろうか？

彼は、倫理学に於て、キリスト一元論とも云うべき立場からその非合法性を暴いているのである。即ち、受肉し給い、十字架に掛けられ給い、復活し給うたミキ

リスト(唯一無二の現実)を仰ぐとき、人間が神の位置にとって代ることはあり得ないという「徹底的基督論」理解から、ヒトラーを「反キリスト」だという理解に達したのである。所で我々が注目すべき点は、このような「キリストセントリック(基督中心的)な思想は、カール・バルトなしには考え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そこで我々は、バルトについて学んで見ようとするのであるが、彼の一切についてではなく、バルトの思想の中心的ポイントを見て行こうとするものである。

1、選びについて

伝統的神学に於ては、選ばれた事を信じる者がキリストの十字架の贖罪の業を通して義認を得て、一生涯、信仰による堅忍の生活を通して、確信し吟味しつつ、この地上での業を通して神の栄光を顯わしつつ、聖霊の働きによって聖化されて行く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に対して、バルト

は、このような教理は救いの確かさに対する真剣な脅威を絶えず自らのうちに造り出しそこから不安、恐るべき自己分裂を引き起こす誤りを犯したと考えたのである。選びというのは、決して隠された神の恐るべき深淵でもなければ善と悪、助けと破壊、生命と死と云うような暗黒や恐怖の否定的(ナイン)の宣言ではなくて、それらを既に克服し勝利したという啓示の福音だ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福音の教理は素晴らしい、幸福な、有益で、喜ばしく、慰めに満ちた音信であって、この音信そのものが光であり、慰めであり、罪人への神の愛と恵みの神秘だという神の肯定(ヤー)の宣言だということである。だから、伝統的選びの教理はこの事実を忘れ去っているとバルトは見ているのである。キリストを選びの鏡だというのなら、選ばれており乍ら、時には不安と恐れで絶望することとは不合理なのであって、我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 曽根崎町2-21
電話 大阪 (06) 341-2162

